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paper 2011.01 01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무엇이 '다가구주택(원룸)'을 불법투성이로 만드는가?

건축기본법의 해부학

신년사 건축문화사랑 공동발행인

시론

'도시라는 무대 위에서 건축가는
'타이틀 롤'을 맡고 있는가?' 박호재
건축가의 생존을 위한 브랜드_유기범

특별기획

무엇이 '다가구주택(원룸)'을 불법투성이로 만드는가?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_이명규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천년의 도시 '부다페스트'_조용준

전통건축

지리산 선교사 건축유적의 특징_남호현

사람 & issue

한국전통건축 지킴이_이봉수

특별기고

건축기본법의 해부학_이창을
건축계획과 원류하는 지구단위계획_양동현

작품소개

2010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빛고를 시민문화관', '김치종합센터'

설계경기

2012 국제농업박람회 생명농업관 건립 설계공모





新/年/辭

尊敬하는 '건축문화사상' 愛讀者 여러분!
2011년 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건축문화사상"에 보내주신 聲援과 관심에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축문화사상"을 아껴주시고 應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國家政策과 經濟與件 등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讀者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加重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建築士의 興件은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한 生存環境으로 내몰리게 되어 過當競爭과 低價受注에 道德性 問題까지 建築士 業務과 관련한 질서 파괴가 深化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國運上昇의 해로 成長과 知慧의 상징인 토끼의 氣運을 받아 우리 모두에게 希望을 주는 跳躍의 해가 될 것입니다.

建築文化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찬란하게 跳躍할 것이며 그 主役인 建築士의 位相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期待됩니다.

우리 社會의 建築에 대한 認識 變化와 要求에 符應하고, 지역 建築文化의 發展과 地方自治團體와 地域民에게 建築을 文化藝術로서 바르게 인식 시키고, 讀者에게 우리 地域은 물론 國內外 최신의 情報을 전달하여 建築文化 轉達의 밑거름이 되고자 創刊된 "건축문화사상"의 役割이 더욱 強調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可能性의 時代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挑戰과 시련 그리고 기회를 동시에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勇氣와 希望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世上은 반드시 이룩될 것입니다.

희망찬 辛卯年! 우리 함께 힘차게 出發 합시다.

愛讀者 여러분! 새해에도 健康하시고 事業 繁昌하시길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신정철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김강수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이성업

"도시라는 무대 위에서 건축가는 '타이틀 롤'을 맡고 있는가?"



박호재 실장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태어나서 맨 처음 눈에 들어 온 대상에 대한 집착은 평생에 걸쳐 유지된다고 한다.

아이와 어머니, 송아지와 어미소, 혹은 아이 침팬지와 어미 침팬지가 거의 숙명관과 같이 본능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인류학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눈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하늘, 땅, 나무 등등 헤아릴 것들이야 많겠지만 거리에 늘어선 건축물만큼 우리를 시야에 빈번하게 들어오는 오브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건축의 존재감 또한 도시인들에게 늘 잊혀지는 가치이다. 이는 문화예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문화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애길 풀어놓다보니 아주 오래전의 어느 술자리 해프닝이 한 가지 떠오른다.

그이는 꽤나 멋진 사람이었다. 문화관련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시장과 공연장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며 보는 눈도 수준 높음, 한마디로 문화적 향기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건축물화를 보는 태도만은 째이었다. 건축을 전공한 숙명으로 심사가 뒤틀린 필자는 그때 술기운을 핑계로 그이에게 이런 애길 내뿜었다. 전시장에 걸린 그림과 무대 위에 오른 공연은 유심히 지켜보면서 왜 눈만 뜨면 보이는 거리의 저 수많은 건축이라는 이름의 조각품은 당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솔직히 전모를 밝히자면 '당신은 문화적 색맹이다'라는 말까지 그때 덧붙였던 것 같다.

문화예술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러한 '색맹현상'을 느끼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의 시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을 그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일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건축가들은 그 색맹현상에서 과연 떼땀한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듣기에 몹시 불편한 얘기겠지만, 필자가 전한 작가들 중에서 건축가들처럼 자기 작업의 치열성을 가깝게 여기는 아티스트는 없어 보였다. 종합적인 사고와 균형 잡힌 시각은 타 장르의 예술가들에 비해 돋보이는 측면이 많지만 자신의 작업에 대한 치열성 만큼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라는 간편한 핑계가 마련돼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또한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건축을 문화예술이라는 장르 속에 포함시킬 때, 여타 장르의 예술가들이 처한 생존의 환경 보다 건축가들이 처한 환경이 결코 열악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정된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이 정직한 표현일 것이다.

건축을 비롯한 공간예술에 대한 문화적 비중은 점점 높아갈 전망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생사업에서 성장의 활로를 찾고 있기도 한만큼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제는 이미 도시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공간예술이 도시행정의 영역에서조차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살아가는 건축가들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다가서는 건축의 사회적 존재감이 이렇듯 막강해졌다. 그렇다면 도시라는 무대 위에서 건축가는 진정한 '타이틀 롤'을 맡고 있는가? 건축가의 존재의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는가? 우리 모두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물론 시민사회의 문화적 상상력이 건축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많지만, 건축가들의 자기 치열성 부재가 낳은 현상이라는 아픈 지적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올 한해는 지역 건축가들이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의 진정한 주역이라는 '타이틀 롤'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

건축가의 생존을 위한 브랜드



윤기병 교수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계가 어렵다. 그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 많은 건축가들이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 수준도 못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불황인 것인가 혹은 구조 조정에 의한 것인가에 대하여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불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호흡기를 대비하여 전문성을 더욱 연마하며 얼마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경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변화의 노력과 함께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필요로 한다.

건축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주문자 맞춤형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수공업에 의한 주문자 맞춤형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변의 많은 주문자 맞춤형 산업들은 과거 수십 년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신발 업계가 그러하였으며, 의류업계가 또한 대량 생산형 산업으로 변화하였다. 즉, 극소수의 디자이너 이외에는 모두들 브랜드를 앞세운 산업으로 이미 변화를 하였다. 패션 업계의 패션쇼는 일반인들과의 디자인 자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홍보 효과 이외에도 브랜드를 알리고 디자이너를 알리는 소통의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에 많은 미디어들이 이를 보도하며 아름다움과 상상력을 공감하고 있다.

건축가에게 다행스러운 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생산형 프리파브 건축산업이 성공적이지 못하여 건축은 주문자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장 생산형 프리파브의 움직임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 특히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기술은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3D 프린트하여 만들어 나아가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벤치기업을 생겨나고 있으며, 유럽 또한 많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주문자 생산방식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가의 능력을 인정하여 더욱 좋고 개성적인 집을 설계하여 갖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지불 가능한 소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브랜드이다. 브랜드는 신용이자 디자인의 가치이다. 즉, 브랜드를 통하여 제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적 환경이 되어 있다.

이제 브랜드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제습업계를 예로 들면, 몇 개의 브랜드를 제외한 수많은 장인들이 이제는 뒷공목으로 밀려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건축실체의 브랜드는 얼마나 있는 것인가? 브랜드의 첫째 조건은 그 브랜드를 보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로 회사명을 짓고 이를 소중히 여겨 가꾸어 나간 건축계의 회사는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는 '앙드레 김' 처럼 유명 브랜드의 설계가 무명건축가의 설계보다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 현실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살고 있으며,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좋은 설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좋은 설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인식 제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



무엇이 '다가구주택(원룸)'을 불법투성으로 만드는가?

지난 2010년 12월 15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가구주택 불법증축에 관련된 광주지역 5개 구청 공무원 22명과 건축사 71명, 건축주 81명 등 총 174명을 적발, 공무원 1명과 건축사무소 대표 1명을 구속하고 167명은 불구속, 공무원 5명은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축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축인들은 이를 계기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불법 여부는 건축 당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모르고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라도 현 소유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물론이고, 건축물을 매입할 때도 불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실제로 일부 다가구주택은 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으므로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하면 영문도 모르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들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다가구주택을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할 수 없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분양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세분된다. 쉽게 설명하면, 1주택 1가구는 단독주택, 1주택 2가구 이상이면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중주택은 하숙집과 같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즉, 가구의 수는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주방 등이 각 가구에 갖춰져 있으나, 각 가구별로 분양할 수는 없으며, 건축법에서는 그 규모를 연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 연속된 3개 층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가구주택은 과거에도 주인집과 셋집으로 구분되는 형태로 존재하였지만 심화되는 도시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자 서민들의 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건축법을 통해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도입된 다가구주택은 도시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하여 일명 '원룸'으로 변질되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가구주택이 곧 원룸이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매력적인 주거형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다가구주택은 원룸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학교 인근이나 지하철역세권에서는 실제로 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흔치않다. 사적으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이다.

그렇다면 왜 원룸은 계속적으로 건축되고 있는가? 그것은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다가 사업자들은 안정된 임대료수입을 가져다주는 원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요자도 공급자도 주거의 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정책 입안자들도 주거의 질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는 건축법에 규정된 최대 연면적 660㎡에 최대 19가구를 단순히 대입해보아도 알 수 있다. 즉, 계산해 보면 177㎡가 차지하는 면적은 공용년적을 포함하여 겨우 34.7㎡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177㎡는 10.5평이라는 것이다. 그 규모에서는 거실과 침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이 별도로 구획될 수 없으며, 결국 거주자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원룸이라 불리게 되었다.

부속주차장이 원룸을 불법으로 만든다.

한편, 다가구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도시의 주택가에 난립하게 되자 필연적으로 주차장이 발생되었다.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의 개념이 도입된 초기에는 일반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결국 원룸에서는 가구 수가 부속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한 때는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에 177㎡ 이상 1대 이상의 부속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 원룸을 건축한다면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사업성이 전혀될 수밖에 없었다.

사업성을 위해서는 가구 수를 최대한 늘려야하는데, 문제는 가구수만큼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속주차장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 11월 이후에는 주차장조례가 전용면적 30㎡ 미만일 경우에는 가구당 0.5대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2009년 11월 이전에 건축행위를 한 다가구주택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구 수를 증설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일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미만일 경우 세대 당 1대이고, 30세대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도시형주택은 주거지역에서 시설면적 50㎡ 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설면적 120㎡ 당 1대이다.

원룸은 경제적 도구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가구주택 중 원룸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규모면에서도 정상적인 주거라고 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주거의 질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수많은 건축주들은 수익성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서슴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 가구 수 1개를 늘린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월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 임대료 1만원은 다가구주택 매매가격 결정에 1천만원 정도의 가치를 보장 받는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원룸은 불법투성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용검사를 받고나면 1가구를 2~3가구로 나누고, 주차관리실, 다락방, 물탱크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러는 무던 증축까지 감행하며 가구 수를 늘린다. 입주자택의 거주환경에는 전혀 이렇듯하지 않고 말이다.

건설업자들은 불법행위를 책임지지 않는다?

원룸이 불법투성이가 되는데 자의든 타의든 건설업자들도 일조하였다. 시공 경험이 많은 건설업자들은 불법행위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불법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권유하며, 그 구체적인 요령까지 전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주들이 결코 과묵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건설업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즉, 건설업자가 불법행위를 조장하였더라도 건축주가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업자들은 애초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원룸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그중 원룸은 미등기 전매로 탈세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때로는 매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사용검사를 마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건축행위자로 위장되기 때문에 모든 불법행위도 같이 떠안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불법 원룸은 또 다른 불법을 낳는다?

그렇다면 건축사는 불법행위로부터 자유로운가?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이번 수사에 연루된 건축사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설계와 감리 그리고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건축행위에 건축사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건축분야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건축사가 고의적인 묵인 또는 업무태만의 형태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코 불법행위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검사 이후에 벌어지는 불법행위만큼은 건축사라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계, 감리, 사용검사 등 건축행위 과정에는 건축사가 개입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사용검사 이후에 벌어지는 건축물의 관리 및 철거과정에는 소유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건축사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선행사례와 관행이 건축사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동참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주위에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건축주와 건설업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행위를 요구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인양 위장하지 못한면 무능한 건축사로 낙인찍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계비와 감리비를 합해도 총공사비의 1/20도 채 되지 않는 보수에 전문가적인 양심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생계형 건축사들의 애환이 그 속에 서려있다.

대책은 과연?

원룸에서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명쾌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기에 이런저런 대책들을 화두처럼 던져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에 대한 의식개선이 다.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원룸도 주거형태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수요자도 공급자도 주거환경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의식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백악이 무효라는 것은 자명하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찌던 현 제도는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6가구인 경우와 12~19가구인 원룸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가구 수와 주차대수 산정방식과의 괴리감도 그러하며, 유난히 원룸의 주차대수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것도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 통신선로 등의 설치를 건축허가 가구 수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행정관청의 불법행위 근절의지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속 또는 양성화를 통해 선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매듭을 짓고, 그 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함과 동시에 엄벌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예외적인 적용은 또 다른 예외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또 평하고 명확해야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전문성 제고와 윤리성 회복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축사들이 철저한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건축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설계업무에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능력보다 합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실력을 통해 경쟁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저가 수주를 핑계로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불법행위는 감리업무를 통해 적발할 수 있으므로 감리업무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담당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승인검사는 그동안의 건축행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 사용승인검사사무를 대행한 건축사들이 무다기로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매우 철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도 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언젠가 또다시 철퇴를 맞게 될 것이며, 자칫 사회적 인명예와 전문직의 영예를 모두 잃을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각 건축사협회에서 사용승인검사사무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여 모든 건축사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열한번째 이야기 : 영국의 '세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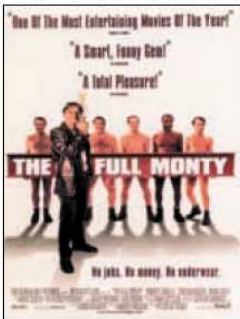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첫번째 이야기 - 도시(City)(2010년 3월호에 게재)
2. 두번째 이야기 - 광주의 공간발달사(2010년 4월호에 게재)
3. 세번째 이야기 - 광주의 시가지계획 (2010년 5월호에 게재)
4. 네번째 이야기 - 싱가포르(2010년 6월호에 게재)
5. 다섯번째 이야기 - 브라질의 '푸리피바'(2010년 7월호에 게재)
6. 여섯번째 이야기 - 캐나다의 '벤쿠버'(2010년 8월호에 게재)
7. 일곱번째 이야기 - 미국의 '시애틀'(2010년 9월호에 게재)
8. 여덟번째 이야기 - 일본의 '요코하마'(2010년 10월호에 게재)
9. 아홉번째 이야기 - 일본의 '구마모토'(2010년 11월호에 게재)
10. 열번째 이야기 - 일본의 '세타가야구'(2010년 12월호에 게재)

도시재생과 문화산업의 모델도시 '세필드'

세필드는 영국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요크셔 중심도시로 인구는 56만명이나 세필드광역도시권의 인구는 140만명에 달한다. 한때 산업혁명의 발생지였으며 철강산업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으나, 1970년대부터 한국·일본 등 신흥공업국들과 경쟁에서 밀려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묘사한 영화가 1997년에 제작되어 세계적인 히트를 친 'The Full Monty'라는 영화이다.

풀몬티란 '모든 것, 발가벗은 알몸동아'란 뜻으로 말 그대로 당시로는 획기적인 남자스트립쇼를 소재로 한



영화 풀몬티(Full Monty)의 표지. 1997년 제작되었으며 남자들이 스트립쇼가 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로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였다.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으며 연극도 성공하였다.

영화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으며 세필드를 알리는데 일등 공신을 한 영화가 아닌가 한다. 풀몬티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세필드가 산업혁명으로 번영을 누렸다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어 세필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아마도 세필드를 알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세필드가 유럽연합에서 도시재생으로 가장 성공한 도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문화산업을 통해 도시 활성화에 성공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화로 먹고 살자'는 캐치프레이어를 걸고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 볼 만한 도시가 아닌가 한다.

실험과 교훈을 통해 새로운 도시활성화의 모델도시로 우뚝 선 '세필드'

세필드는 도시의 쇠퇴를 막고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과감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세필드 인근에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인 메도우홀(Meadow Hall)을 도시교외의 1번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건립하였다. 메도우홀이 건립되어 잃었던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벗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메도우홀은 오히려 세필드의 도심 쇠퇴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두 번째는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여 스포츠도시로서의 명성을 얻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세필드는 1991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스포츠기반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그러나 일회성의 행사는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도시활성화 자체를 성공



세필드의 중심지 도심재생종합계획의 하나로 시청주변에 대한 도심재생사업을 나타내고 있다. 보행자들이 걸으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세필드 시청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모습

적으로 만들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런 실험과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은 세필드시는 도시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도심종합개발계획(City Centre Integrated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도시활성화 즉 도심재생을 위하여 도심에 다양한 기능과 활동성을 부여하고 첨단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관협력의 도시재생공사인 세필드원(Sheffield One)을 설립하여 개발추진의 동력을 갖도록 하였다.

문화산업을 통한 도심재생과 도심재생공사인 세필드원(Sheffield One)

세필드는 도시활성화를 위해 도심종합계획에 따라 소매상인이 많은 도심거리를 다른 어느 도시보다 길기 좋고 쇼핑하기 좋은 도심으로 만들었으며, 상인들과 함께 가로변을 정비하였다. 무엇보다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도시를 활력있게 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문화산업특구를 도심에 지정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기술전문대학이었던 할람(Hallam)대학을 실용 디자인 등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대학으로 특화시켰고, 100년전 포크를 만들다 비어있던 공장은 40여개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한 연구단지로 변신하였다.

철강산업의 중심지이자 산업혁명의 상징이던 세필드는 지금 게임 등 문화콘텐츠 업체만 400여 개가 몰린 창조혁명의 거점으로 대변신을 했다. 도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도심재생공사는 세필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민간주도의 지원체계이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있었기에 도심재생사업은 성공할 수 있었다. 세필드시가 주는 교훈은 성공적인 도심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도시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심에의 새로운 기능부여와 새로운 교통시스템(Trim)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며, 추진방식도 독자적인 민간주도의 자속적인 지원체제로 운영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세필드에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트림(Trim)으로 교외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좋게 하고 도심지내의 주차난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재생을 위하여 시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재생을 위한 종합계획의 부재, 명칭만 변경된 이런저런 위원회(ad hoc)설립과 운영,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추진의 부족 등으로 진정한 도심재생을



세필드 도심재생공사의 협력조직을 나타낸 그림으로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도심재생을 위해 세필드시가 추진했던 전략과 교훈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imgyoung@gwangju.ac.kr



세필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건립한 밀레니엄갤러리(Millennium Gallery)의 야경. 세필드시에서 만든 다양한 문화산업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윈터가든(Winter Garden)의 모습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휴식도 하고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심에 실내정원을 만들었다.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네번째 이야기 -
천년의 도시, 부다페스트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 첫번째 이야기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2010년 10월호에 게재)
2. 두번째 이야기 - 광장의 도시, 성당의 도시 '로마' (2010년 11월호에 게재)
3. 세번째 이야기 - 건축박물관 도시, 체코 '프라하' (2010년 12월호에 게재)

이 글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월간 '조선대학교 소식'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재구성하여 제공하였으며 매 회 세계 각국 역사도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다페스트는 헝가리 북서부지역의 도나우강 연안에 입지하고 있는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중부 유럽의 최대도시이다. 우리에게겐 학창시절에 들었던 '다뉴브강의 물결'이라는 왈츠곡 때문인지는 몰라도 영어식 발음인 다뉴브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강은 알프스 북부산지에서 발원하여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9개 나라를 흘러 흑해로 들어가는 동유럽문화의 근원이자 생명줄의 강이다. 부다페스트는 이강을 사이에 두고 부다와 페스트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부다지역은 로마제국을 지키는 요새망의 중심지로 건설되면서 시작된 지역으로써 왕궁, 마차시 성당, 어부의 요새, 겔레트리 언덕 등이 입지하고 있다. 페스트는 상업지로 시작된 지역으로써, 성 이슈반 성당, 국회의사당, 국립박물관, 비피저리, 바르슈 광장, 영웅광장 시민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중심부의 거리지도

16세기부터 약 150여년간의 터키지배와 그 후 수백년간의 합스부르크가 통치,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때에 각각 오스트리아와 나치편에 섰다가 패전국이 된 나라의 수도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역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세계적 매력의 도시로 다시 태어났는데,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가는 도나우강 유람선에서의 시가지 모습은 물론, 겔레트리 언덕에서의 시가지 모습이나 세체니 다리 근처에서의 왕궁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 대개 유럽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이 도시도 관현악단을 300여개 갖고 있고, 1년 내내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이 쉬지 않고 공연되고 있는 예술과 문화가 있는 도시이다.

특히 근교인 마르톤 바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베토벤 페스티벌은 세계적 권위의 음악축제로 유명하다. 이밖에도 1933년 헝가리 무명의 피아니스트 레조 세레제가 작곡한 글루미 선데이는 도시에 또 다른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곳은 1935년에 레코드가 발매 되자 2달만에 거의 2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하였고, 1936년에는 파리에서 이 곡의 연주를 끝낸 63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두 자살하여 뉴욕 타임즈가 특집 기사를 실기도 했던 곡이다. 1968년에는 작곡가 자신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까지 했던 이 곡은 1999년에 독일인 슈벨 감독이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한 닥 바르코프의 소설 글루미 선데이가 영화화되면서 다시 유명해졌는데, 2000년에 우리나라

에서도 개봉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부다페스트는 역사적 자산이 분산되어 있고, 도시규모도 커서 걸어서 여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지하철이나 트램, 미니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는데, 지하철은 유럽에서는 런던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타보는 것에도 또 다른 재미가 있다. 거기에 유럽에서는 보기 드물게 로마시대부터 관절염과 피부병에 좋다는 온천이 있어서 이래저래 유명한 도시이다.



부다양궁

부다지역의 역사적 건축자산

이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현재는 역사박물관과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다양궁이다.

13세기 후반 벨라4세 왕에 의해 지어진 요새형의 이 왕궁은 15세기 마차시1세 때에 이탈리아 예술가들에 의해 르네상스 양식으로 재건축되어졌다. 그러나 그 후 여러 전쟁 등을 거치면서 파괴되었다가 17세기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에 의해 건축된 건물로서, 북쪽 벽에는 아직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총알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부다페스트 이력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가지 전경도 매혹적이다. 이 아래쪽에는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1269년 벨라4세왕에 의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가 14세기에 고딕양식으로 재건축되어진 마차시 성당이 있다.

빈에 있는 슈테판 성당과 양식은 물론, 지붕의 모자이크까지 비슷한 이 성당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프레스크코화가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주는데, 마차시 왕의 두 번의 결혼식과 1867년의 헝가리 황제로 즉위한 합스부르크가의 프란츠 요세프 황제와 마지막 황제인 카롤 4세등의 대관식이 열렸던 성당으로도 유명하다. 성당 바로 옆에는 파노니아 산맥에 정착했던 마자르계의 7개 부족을 상징하는 네오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혼합된 7개의 하얀 뾰족탑을 갖고 있는 어부의 요새가 있다.



어부의 요새

형태의 독특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는데, 특히 건물 입구의 노천카페는 한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강 건너 아름다운 전경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늘 분빈다.

이곳에서 위쪽으로 가면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리는 해발 235미터 겔레트리 언덕이 있다. 11세기에 초대왕인 아슈트반 1세가 초청한 이탈리아 전도사 성 겔레르트가 이교도들에 의해 통속에 갇힌 채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순교했던 장소이기도한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가지 야경은 환상적이기까지 하다.

페스트지역의 매혹적인 건축자산

부다지역에서 페스트지역으로 가게 되면 헝가리의 위대한 위인으로 추앙받는 세체니백작이 1849년에 영국건축가 애덤 크라크에 의뢰하여 만든 다리를 만



국회의사당

나게 된다. 밤에 불을 밝히는 5,000여개의 전구가 사슬처럼 보인다고 하여 사슬다리로 불리기도 하고, 다리 양쪽을 지키는 아름다운 네 마리의 사자상이 허가 없다고 하여 울지 못한 사자로도 불리는 이 다리 야경은 더욱 아름답다. 다리를 건너면 부다페스트가 탄생한지 7년 후인 1880년에 헝가리 건국1000년을 기념하여 머저르족이 최초 정착한 896년을 상징하는 높이 96미터의 국회의사당이 있다.

영국의 국회 의사당과 흡사한 네오고딕양식의 국회의사당 앞 광장은 1956년에 소련군의 탱크에 의해 실패한 헝가리혁명이 일어났던 곳이자, 1989년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 붕괴와 함께 새로운 자유국가를 선언한 곳으로 더욱 유명하다.

이 뒷쪽에는 1905년에 로마양으로부터 왕관을 받고, 이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한 초대왕 이슈트반 1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성 이슈트반 성당이 있다. 19세기 후반에 건축된 이성당 높이 역시 96미터 높이인데, 이곳에는 페스트 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이슈트반의 오른손이 보존되어 있는 유리관이 유명하다.

이곳 뒷골목을 걸어 보면 관리되지 않은 건물이 자주 눈에 띄기도 하지만, 4~5층 높이의 로만고딕, 네오 클래식, 네오바로크, 네오 르네상스, 아르누브 등 다양한 양식의 풍경은 흡사 파리를 연상하게 한다. 이 주변에는 부다페스트의 최대 변화가로서 흡사 명동과 같은 느낌을 주는 보행자 전용쇼핑 거리인 바피저리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부다페스트의 현대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페스트 지구(가운데 높은 건물은 성 이슈트반 대성당)

성당 뒤쪽의 큰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다보면, 1926년에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만든 영웅광장이 있다. 헝가리 주요행사 열리는 이 광장은 주말이면 늘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 등의 묘기를 보이는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여 활력을 만드는 상징 광장이다. 광장 건너편에는 그리스 신전 모양의 근대미술관과 1802년에 세체니 백작이 자신의 저택을 개축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1846년에 헝가리 건축가 미하이 플라크가 설계한 헝가리 국립박물관이 있다.

여기에는 이슈트반 백작이 평생 수집한 동전과 책 등은 물론 헝가리 건국에서부터 왕의 대관식에 쓰던 망토와 왕관을 비롯하여 1백만 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헝가리 역사를 보다 가까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비피저리 아래쪽에는 국립도서관과 유럽에서는 세 번째로 세워진 공예 미술관, 그리고 지금은 루마니아 영토인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드라쿨라 전설이 깃든 바이다 호나드 성을 재현한 바이다 호나드 성이 있는 시민공원, 섬의 빈민굴에서 평생 봉사활동을 했던 마르키트공주의 이름을 딴 마르키트섬의 공원도 가볼만하다. 이처럼 부다페스트는 수많은 역사적 아픔을 겪었지만, 노력에 의해 천년의 도시이력을 모자이크처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도시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지리산 선교사 건축유적의 특징

남호현 교수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0년 4월호(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교수 '21세기 새로운 한국의 가능성'부터 전통건축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이번에는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남호현교수의 지리산 선교사 건축유적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게재 한다.

지리산 휴양관 마을

1962년 이후에 건축된 지리산 휴양관은 기독교·개신교의 선교 유적으로 지리산의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왕시루봉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등산객의 출입이 금지된 왕시루봉 등산로의 9부 능선쯤에서 이정표처럼 홀로 우뚝 선 나무를 좌측으로 끼고 돌면 휴양관의 진입로와 접촉된다. 휴양관에 다다르면 왕시루봉 등산로의 마지막 식수원과 저수지 아래에 위치한 교회가 나타난다. 교회 입구에서 진입로를 뒤로하고 섰을 때 좌측에 창고와 저수지가 있고, 우측 작은 언덕 너머에 선교사 휴양관이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다.



예배당

휴양관 마을은 해발 1,080m에서 1,120m 사이에 남북으로 약 250m, 동서로 약 80m의 공간에 독자적인 작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9월 현재 마을은 주택 10동과 마을 초입에 위치한 마을 공동시설인 교회 1동, 창고 1동, 수영장(저수지) 1개소와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산 아래의 구레움이나 구레움과 인접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서쪽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주택 10개동은 <샤롯데 벨 린튼 주택>, <조요셉 주택>, <한성진 주택>, <배도선 주택>, <모요한 주택>, <브라운 주택>, <도성래 주택>, <하도래 주택>, <로빈슨 주택>, <인휴 주택> 등이 있으며 그밖에 야외 예배당 등이 있다.



저수지

지리산 휴양관 주택의 건축적 특징

지리산 휴양관의 주택들을 연구 조사한 결과, 건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였다.

첫째 서양 선교사들의 주거건축일지라도 한국 전통적 공간배치와 건축구조를 채용하였다. <샤롯데 벨 린튼(Charlotte Bell Linton) 가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가의 배치와 같이 집안의 부엌 안에 전통적인 아궁이

가 설치되어 있으며 온돌방을 지나 굴뚝이 본 건물과 이격되어 배치되었다. 아궁이에는 전통가옥에서 볼 수 있는 툇마루도 설치되어서 부뚜막 위 툇마루를 통해 부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번소 역시 건물로부터 다소 떨어져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전통적



샤롯데 벨 린튼 가옥

인 위생 개념을 채용하였다.

건축의 구조에 있어서는 <인휴(REV. Hugh M Linton) 주택>과 <도성래(Dr Stan Topple) 가옥>이 한국건축의 뼈대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건축물에서는 한국의 무고주 5량집의 구조형태를 채용하였고, 부재의 축조에서도 한국 전통 방식의 맞출과 이를 기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사용된 부재는 인근 산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꺾질만 벗기는 정도의 수작업 가공하여 한국의 토착 서민주택에서 볼 수 있는 건축기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 중 <도성래 가옥>은 지붕 뼈대의 서까래와 보, 도리의 쓰임을 더욱 실제적인 한국의 구조체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적용된 건축기술은 한국의 토착적인 기술로 지역의 장인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도성래 가옥

둘째 영국 농촌주택의 건축양식을 도입한 가옥이 있다. <배도선(Peter R M Pattison) 가옥>은 영국의 Thatch House의 지붕기법을 채용한 사례이다. 배도선은 영국 캠브리지에서 의학을 공부한 선교사로서 그의 고국의 건축양식을 채용하여 집을 지었다. 이 가옥은 비교적 후기에 지어졌지만 호주 선교사(John Brown)가 전달해준 영국의 농가주택 텍스트를 참고로 지은 것이다. 배도선이 사용한 이 셋집은 지리산에



배도선 가옥

서 산출되는 약재를 이용해 지붕기법을 하고 인근에서 간별한 목재를 기계적 가공 없이 꺾질만 벗겨 건축재로 이용하였다. 결국 한국기술자의 토착적 기술이 깊이 스며든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 농촌주택의 기술을 도입한 가옥이 있다. <인휴(REV. Hugh M Linton) 가옥>은 일본의 갓소즈쿠리와 가이부키를 채용한 건축이다. 이 가옥은 왕시

루봉 휴양관 건립초기에 지어진 건물로 일본의 갓소즈쿠리 건물을 현지에서 촬영해 오고, 가이부키 공사에 경험이 있는 초공을 데려다 지은 집이다. 이 가옥은 2층에 다락방을 만들기 위하여 일본 갓소즈쿠리의 차수구조 개념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갓소즈쿠리 가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가 등재한 문화유산이다.

넷째 노르웨이식 건축양식을 도입한 가옥이 있다. <도성래(Dr Stan Topple) 가옥>은 노르웨이 건축양식을 도입한 사례이다. 이 건축은 왕시루봉 건축 중에



인휴 가옥

서 매우 특별한 배치와 형식을 갖는 건축물로 비탈진 경사지 아래에 지지 기둥을 세워 그 위에 건축을 하고 조망이 좋은 가옥을 축조하였다. 이는 노르웨이의 농가건축(창고)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도성래 선교사가 노르웨이인인 그의 부인과 4명의 자녀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노르웨이 지역주택은 해안건축 혹은 산악건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건축은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발코니에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인 노르웨이 건축의 축조방식인 기터구조(Gitterbauweise)형식과 공간구성, 그리고 입지조건을 노르웨이식에 따랐다. 또한 노르웨이 전통가옥 중 산악형 스토바(로프트)형식을 도입하여 왕시루봉의 선교사 휴양관 마을의 가장 깊숙한 경사지 비탈면에 지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직립식 구조인 기터구조가 기둥과 보 사이에 가새를 대어 구조적 안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 가옥의 특징 또한 과도할 만큼 가새를 보와 서까래에 많이 대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미국의 A-Frame을 도입한 가옥이 있다. <샤롯데 벨 린튼(Charlotte Bell Linton) 가옥>은 1950년대의 미국의 A-Frame을 도입한 사례이다. 이 건축형식은 영국의 건축형식이 이민자들에 의해 북미에 이식된 출형 건축양식 중의 하나(개리슨 스타일)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휴양지 건축(캐빈)으로 현대의 건축가(Andrew Geller)에 의해 뉴욕의 롱아일랜드 해변에 지어진 건축이다. 이 같은 건축양식은 애초 한국 전통의 셋집 위에 상부 건축물만 도입하여 한국 전통의 기능적 배치를 살리고 그 위에 건축한 사례이다.

왕시루봉, 건축사적인 가치

이와 같이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휴양관 마을은 그 대표적 건축물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건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재적 보존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외의 다른 건물들도 이 마을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 구성을 저해하는 어떤 훼손도 그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재의 마을 구성은 현재의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밖에도 지리산 왕시루봉 유적은 그 마을을 구성하고 조형함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이 교섭하여 이룬 생태적 통섭 환경을 이룬 문화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치를 지닌 많은 건축물들은 매우 노후한 상태에 있으며 이것들에 대한 수리 및 보수가 시급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지리산 선교사 유적조사와 문화재적 가치연구*에서 발췌 요약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봉수 문화재기술자/건축사
(주)삼진건축사사무소

한국전통건축 지킴이 이봉수 건축사

그가 한국전통건축의 길을 선택했을 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항상 웃음이 가득한집" 전남 화순소재 이봉수 건축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글귀는 들어서는 이의 기분을 흐뭇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건축에 임하는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표현하는 듯... 한옥냄새 물씬 풍기는 집무실로 들어설 즈음 눈가에 미소 가득한 반가운 벚을 맞이하듯 웃음 짓는 이봉수 건축사를 만났다. 동장군이 흠뻑 땀 그날 손수 내려준 전통차에 한껏 어울리는 그와 담소를 나누었다.

한때 우리나라 전통건축 관련서적은 구입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전통건축과 관련된 전문서적은 언제나 서울에 있는 대형서점이나 가만만 겨우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책을 구하면 제일 먼저 책 뒷편의 한 면을 빌려 서점이름과 구입일자 그리고 이름 석 자와 함께 짤막한 몇 자를 똑박똑박 적어두는 버릇이 생겼고 2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때 묻은 책갈피를 넘기며 그 시절을 펼쳐보곤 한다고 한다. 체계화되고 적립되지 않았던 전통건축의 외로운 길을 걸어온 이봉수 건축사와의 대화내용을 1문1답으로 정리해보았다.

Q. 전통건축이라는 분야의 길을 걷게 된 동기와 건축사로서 걸어오신 길은?

전통건축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둔 시절에서 학부시절 서구문화에 대한 사회적 열풍과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전통건축'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는 릴레이 경기와도 같아서 누군가 그 바통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문화의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문화에 담긴 아름다움을 예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을 전공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은 당시 찾아보기 힘들었고 몇몇 학교에서 교양과목 정도로 가르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한국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내가 한국전통건축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하신 건축철학은?

제가 건축인으로서 걸어온 길은 현대의 삶을 담는 집보다 우리할아버지의 생활터전이었던 옛집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에 우선 전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문화와 삶의 행태를 살피고 그에 따른 건축조형사상이 무엇이었는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집이란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행태는 시대에 따른 문화를 바탕으로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행태의 변화에 따라 집의 모습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전통건축의 계승이란 옛 조영(造營)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영과 사상을 토대삼아 이 시대의 문화와 삶을 담

아 낼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와 그 이유는?

존경하는 건축사는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한분 뽑으려면 고인이 되신 장기인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전통건축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넘어야 할 큰 산이 한국건축에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목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인 선생님은 건축사와 문화재기술자로서 설계업적도 뛰어 나시지만, 집필하신 수많은 건축 관련 전문서적은 한국 전통건축 공부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시면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Q.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신다면?



F1 자동차 경주장 구조용집성체 한식육교



완도 산림박물관

'완도수목원 산림박물관'은 한식목구조로 건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고, 개인적으로는 첫 현상공모 당선작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영암 전통한옥형 숙박단지'는 우리 조영을 밑바탕에 두고 현대적 기능성을 반영한 한옥형 호텔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요, 새로운 공법을 시도한 'F1경기장 한식육교'는 목구조로서는 국내 최장경간(교각중심간 42m)으로 디자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성 홍길동 테마파크 청백당



영암 전통한옥형 숙박단지

Q. 가장 아쉬움이 큰 작품과 그 이유는?

모든 작품에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특히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도지사공관의 마스터플랜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도지사공관은 도민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은 옛 조영에 기반을 두고 동헌과 내아에 상응하는 공간의 기능을 발휘하여 전남을 찾아온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한옥을 체험하게 하여 우리문화를 느끼고 배우게 하며 또한 비즈니스센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축소된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Q. 건축사로서 앞으로의 계획

은사님으로부터 '擬古創新'이란 이휘고를 받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전통건축을 설계하는 건축인으로서 내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전통건축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설계와 더불어 그 조형사상을 바탕으로 둔 차세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친환경 집을 설계하는 건축인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정리: 정영법 건축사기자 jandk2008@paran.com

사진: 박종호 건축사기자

신은 자연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도시를 창조한다.
 God was created the natural, human beings are creating the city.
 『William Cowper / 1731. 11. 26 ~ 1800. 04. 25』

주 GA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향로485 건축사회관 3F T. 062) 361-0123 M. 010-3606-0900
 globaleng@empal.com 대표건축사 이창윤



이창울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주)GA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기본법의 해부학

1. 머리말

아름다운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파리의 퐁피두센터는 800만명, 동경의 롯데빌딩은 600만명의 연간 해외관광객을 불러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연간 해외관광객수 보다 더 많다.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개선을 위한 건축기본법이 공포된지 벌써 3년째 접어들었다. 이로 인하여 국격을 높이는 건축정책담론의 자리에 건축전문가가 대통령좌우에 앉게 되었다. 법제정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구성과 추진체계, 주요내용을 해부하여 광주, 전남·북의 관계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파과와 전략수립의 도움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법 제정과 추진배경

1) 입법의 필요성

① 우리의 건축현황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과 6.25전쟁으로 인하여 도시기반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이후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소득의 증가로 도시화가 90%를 넘었고 건축활동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의 도래, 새로운 건축도시정책 수요의 발생, 범지구적 환경문제, 미래사회의 고령화, 소득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건축문화 욕구에 대응한 장기적인 건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의 건축·도시환경에 대해 「품격낮은 건축물», 「고유의 정체성 부족», 「도시의 부조화」의 문제점을 선진화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지적하였다. 건축시 적용되는 건축기준은 90여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또한 소관도 각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어 건축사의 설계과정과 인허가시 모든 관계법령을 공무원이 검토, 확인하여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 등 종합적인 건축정책부재의 개선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건축정책수립 및 관리의 제도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건축정책의 기본계획내용에 건축문화, 공간환경, 지역건축, 에너지, 친환경, 전문인력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건축관련 90여개의 법률을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설계자, 시공자 및 관계공무원이 열람토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핵심요소로서 많은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국가 및 그 도시의 이미지가 좌우되어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 국고를 보조하는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공공건축을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에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제도화하였다.

2) 제도화 이후 건축의 발전상

국가, 지자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건축관련자의 인식제고로 건축문화창달을 도모하는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한다. 도시공간환경의 개선, 지역의 품도성, 전통성의 계승과 함양, 대국민 건축행정서비스 확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 국민의 건축에 대한 애착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축문화를 골목없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경제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3) 법률제정 추진경과

2005년 4월 건축관련법령의 조정 및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건축규제 통합관리방안연구를 시작으로 2006년 6월 15일 대통령령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전략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건축기본

법의 제정 추진을 대통령께 보고, 2006년 8월 초안 작성 및 기초자료연구, 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발주, 2006년 9월 20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2007년 4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18인의 발의와 2007년 1월 일부를 수정하여 강길부의원 외 15인의 재 발의로 공포하게 되었다.

3. 법 제정의 기본방향

건축분야 정책이념,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필요한 시책의 기본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당해분야 정책수립과 조정에 관련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자체에 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건축관련 법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관련 개별법에서 기준을 제개정, 운영 및 집행하도록 하였고 건축과 관련한 법률은 건축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제 개정하였다.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규제는 규제 심사를 통하여 기본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게 조치하여 중앙행정부처가 관할하는 다양한 건축관련정책 및 사업의 상호 유기성을 보장하였다.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화, 주민지원기구를 통해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5. 건축기본법의 주요내용

1) 건축의 기본이념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고려된 생활공간적 공공성을 조성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 수용하며 환경영향의 최소화과 자원의 재이용, 재생촉진으로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한다.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문화, 산업적 경쟁력을 제고하며 전문가의 창의성을 존중하게 된다. 기대효과로는 정책대상을 건축물에서 공간으로 확장하여 현행 개별법지 단위의 건축물과 도시계획 등의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행 단편적, 계량적 기준 중심의 건축관련 법령에 대해 공통적인 건축정책의 기본이념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국가 및 국민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스스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서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한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건축관련 전문가는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토록 노력한다.



4. 법의 구성 및 추진체계

1) 법의 구성체계



2) 건축정책의 추진체계



3)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의 생태환경, 실내환경, 에너지, 수자원,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사항과 건축의 역사성, 품도성, 전통성, 지역성,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환경조성, 건축문화 구축, 미관 및 경관의 조성, 건축물의 안전성, 보건성, 기능성, 쾌적성, 건축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개발,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대효과는 건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계획의 수립과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된다.

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위원회

건축정책의 심의·자문·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신설, 국가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부처의 건축분야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지역의 건축발전 사업지원에 관한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국제 교류 증진, 일반인의 건축교육, 주민지원기구 설립, 건축문화행사 추진, 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건축정책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의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기능으로는 해당지역의 건축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한다.

5) 건축기준 통합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관련기준을 통합한 정보시스

“수준 높은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의 역할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디자인의 독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각 부처에서 관련기준을 등록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시 부처간 의견수렴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심으로 건축기준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 기대효과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기준을 통합 시스템에 등록, 설계자, 시공자,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여 건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6) 건축문화사업에 재정지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문화 관련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 전시, 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사업, 국민의 건축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건축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등의 사업에 국고보조와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기대 효과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여 사업추진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7) 건축문화 기반구축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통합된 건축디자인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의 적용을 권고하며 공공공간에 대하여 통합된 건축디자인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에 통합건축디자인을 적용하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일부 민간발주 건축디자인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건축 관련 민원, 인허가업무, 공공건축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민간전문가를 채용, 위촉하여 해당업무를 총괄진행, 조성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건축디자인 개선과 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구를 설치한다. 기대효과는 일반국민의 건축에 대한 기대수준,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과 건축정책에 시민, 전문가, 행정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6. 맺는말

아름다운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요, 산업이며 경제가 된다. 새만금, 엑스포, 문화의 전당 등의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우리의 도시에서 건설 중에 있다. 파리의 콩피유센터, 동경의 롯본기힐즈,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처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티브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건축은 실용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아름다움에 기본가치를 두고 광주, 전남·북의 도시환경과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건축물과 공공공간으로 이루어진 도시환경은 우리의 일상생활공간이다. 그 도시의 건축정책은 그 나라의 도시환경을 바꾸어가는 수단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수준 높은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의 역할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디자인의 독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축과 도시환경의 디자인생산과정에서 산, 학, 관, 민의 참여를 권장하여야한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설계기법의 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정주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건축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떠나가는 도시에서 다시 모여드는 광주, 전남·북 다음의 행복한 도시가 창조 될 것이다. ■

* 자료 / JIA(2010.10.09 키타큐슈)대회에서 발표한 한국건축기본법 기준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건축계획과 환류(Feed Back)하는 지구단위계획



양동현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AD그룹 대표이사
광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어느 지역이나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며 발전한다. 도시계획은 여건 변화에 따라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며 수립한다.

도시설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건축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었다. 즉, 건축설계와 더불어 도시를 설계하고자 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상세계획'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를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는 계획이며, 미관과 경관을 디자인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1종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선 계획에 의한 후 개발의 논리를 갖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구체적인 단계일한 디자인을 통하여 입체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 시행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제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시·건축·교통·조경·지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색채·경관 등도 규제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의 문제점

문제점 중에는 협의 또는 심의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의 혼선 등과 같이 운영미숙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지만, 상업적 개발의식(명장사, 자가 상승 등)에 편승하여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공공건축물과 문화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잔여 필지에 배분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단독주택용지는 생활의 편의, 사생활 보호, 주차 공간,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체 최소한의 규모로 분할되어 이면도로에 나열되었다. 또한 개성을 상실한 획일적인 토지분할, 용도별 비율

제한, 융통성이 결여된 과도한 형태제한 등은 건축 디자인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건축가의 건축계획 소홀로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과 건축계획이 서로 환류(Feed Back)하는 수단과 수법이므로 다음가는 과정을 거쳐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상으로부터 각 필지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포함된다면, 건축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자칫히 당연하다.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성과는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성이 강한 반면에 건축계획은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건축계획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에 조화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서로가 끊임 없이 조정 환류(Feed Back)하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조직들이 아이디어를 환류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토록해야

따라서 건축전문가가 지구단위 조성사업 진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문화관광시설, 서울 근교의 주거 및 숙박시설과 한옥 보존, 일본의 구마모토 아토프리스 정책, 오키와마의 새로운 도시창조, 오지 산간의 오구니마을 특성화, 싱가포르 문화도시 등 국내외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건축가가 참여한 계획이 지역의 특성을 더욱더 승화시키며 문화적 가치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점들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자는 지금까지의 틀에서 여타이거보다는 창조적이면서 주민과 시민의 삶에 감동을 주는 계획수립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시·건축 전문가, 행정기관, 대학 등이 아이디어를 환류(Feed Back)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도시·건축·문화 발전의 시대적요구를 인지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여성 건축사로 살아가기



신은은
건축사사무소 사람 대표/건축사

공자는 논어에서 40을 불혹이라 지칭했다고 한다. 세상에 일이 정성이 빠졌어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로, 공자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기 시작하여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도 도를 넘지 않았다는 말을 남기는 중에 들어있는 말이 라 한다. 공자는 40에 세상에 미혹되지 않았으나 나 도 과연 그러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자와는 다르게 15세에 건축에 입문하지 못하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 건축에 입문하게 되었다. 건축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단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막연하게나마 '전문인'이 되고자 함이 이유였던 듯하다. 부모님의 슬하에서 생활하다가 오로지 나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세상의 한 가운데서 보게 되니,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 친절하지도 않았던 듯하다. 하여,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 더 나아가 좋은 건축사가 되기 위해, 나는 지나쳐버린 수많은 기간 동안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과 극기를 했던 것 같다. 비교적 무탈하고 안이하게 살았던 짧지 않은 세월을 쌓은 시간에 잡이채기는 쉽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일상(日常)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한꺼번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이제 나는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한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는 하나하나 잘 하면 됐었고, 230대 때에는 하나하나 좋은 구성원이면 됐었는데, 40에 이르니 갑자기 여거기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치에 서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비교적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됐었는데, 어느덧 여거거기에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것이 적잖이 당혹스럽기도 하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굼직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내가 대견스럽기도 하다. 따르는 게 아닌 앞서서 이끌고 가야하는 것,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일들이, 버거울 때도 있고 그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지만,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의 열매가 보람으로서 다가오는 걸 느낀다.

가끔... 느리게 사는 것, 비우고 사는 것이 부러울 때가 있다. 정자의 글을 읽으며, 욕심을 부리기 보다 여유롭게 사는 것,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을 꿈꾸어 보기도 한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방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나의 조금 힘들음이 다른 이에게 도움으로 다가갈 수도 있으므로 애써 느리게는 발걸음을 재촉해 본다.

* 자료 / JIA(2010.10.09 키타큐슈)대회에서 발표한 한국건축기본법 기준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건축상을 시상해왔다. 본 지면에서는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건축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금 상 광주영성박물관
- 은 상 빛고을 시민문화관, 김치종합센터
- 동 상 TURTLE HOUSE, 상우 힐스테이트, 광산미래아동병원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_ 한남수 건축사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빛고을시민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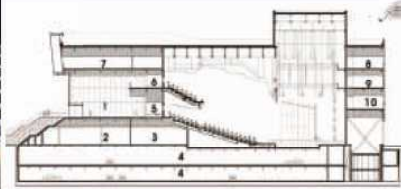
— 예향 광주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

- 작품명 : 빛고을시민문화관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번지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715석)/ 교육연구시설
- 건축주 : 광주광역시
- 설 계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시 공 : (주)남양건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정체되고 노후화 되어가는 구도심에 활력소가 되고, 광주인의 문화 예술적인 욕구를 마음껏 향유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집회시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과 외부공간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 단일 매스(mass)로 계획하였다.

건물은 부정형의 대지에 대응하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도심을 향한 정면성을 강조하였고, 접근이 용이한 입체적 공간 구성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열린 공간이 된다. 입면계획은 전체 매스를 감싸는 다면의 외피로 구성하였고, 공연시설을 둘러싼 외피는 상하 두 개로 분리되어 표현하여 Solid면과 Void면이 서로 교차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장과 도심을 향해 열린 입면은 구도심과 연계를 고려한 상징적 매스를 형성한다.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_ 조성호 건축사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김치종합센터

남도의味が 버무려 지는...

- 작품명 : 김치종합센터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389번지 일원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
- 건축주 : 광주광역시
- 설 계 :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 시 공 : (주)남광건설



전통 음식문화의 중심인 김치의 체험 및 학습기회 공간을 제공하게 될 김치센터는 대지주변 화방산과 가산의 흐름을 대지 내로 적극 수용하여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배치 및 동선처리계획으로 자연 속에 스며들게 하였으며, 비움과 채움을 이용한 내외부공간의 순환적 체계 구성, 보행자 진입축에 따른 공간의 단계적 / 점층적 위계 구성, 지붕과 처마선 등 전통적 요소를 도입하여 전통건축미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속적 공간체험을 위한 견학동선으로 김치박물관과 김치공장 견학로 사이에 야외전시 공간을 두어 겨울을 나기위한 김치의 생산과정과 우리 생활로서의 김치를 보여주려 했다.

2003년부터 개최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국제적인 박람회로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의 국제화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 2012년 11월 '2012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행사 및 전시공간 확보 등을 위한 '국제농업박람회 생명농업관' 건립 설계경리공모 결과 (주)발해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적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의 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총 39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2012 국제농업박람회 생명농업관 건립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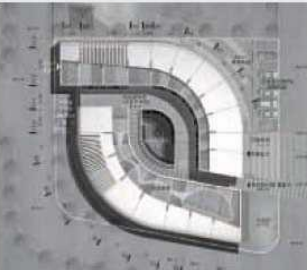
▲ 조감도

당선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씨앗의 형태에서 나오는 유기적 곡선과 축선을 고려한 배치는 순환의 형태를 가지며, 순환의 에너지는 방향성을 부여하게 된다. 자연(전시동)과 인간(사무동)의 공존이 융합된 고리 형태의 배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 관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206-7외3필지 내
대지면적: 126,10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연 면 적: 24,985.16㎡(기존: 23,152.85㎡, 증축: 1,832.31㎡)
건축면적: 16,482.59㎡(기존: 14,934.76㎡, 증축: 1,547.83㎡)
건 폐 율: 13.07%
용 적 율: 17.98%
층 수: 지상 2층
최고높이: 9.9M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 친환경합성목재, 노출콘크리트
주 차: 12대 (장애인 1대 설치포함)



▲ 배치도



▲ 정면 투시도



▲ 배면 투시도



▲ 조감도

우수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류연창·박상구 건축사

부지에 접하고 있는 녹지공간과 대지 형태에 의한 유기적 흐름을 수용하고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배치계획과 독특한 매스의 디자인으로 인해 랜드마크적 요소를 가미하였으며 다양한 전시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3mx3m 모듈을 적용하여 소규모 및 대규모 전시 공간을 확보하였다.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206-7외 3필지 내
대지면적: 2,50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연 면 적: 1,841.75㎡
건축면적: 1,158.97㎡
건 폐 율: 46.36%
용 적 율: 69.48%
층 수: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 징크판넬, 칼라일루미네이션, 지점품 뿔칠
주 차: 13대 (장애인주차 1대 포함)



▲ 정면 투시도



▲ 측면 투시도

각 시도건축사회 시무식 가져

- 모두 한마음으로 건축문화가 부흥하는 한해가 되기를...



광주건축사회와 전북건축사회가 각각 시무식을 갖고, 2011년 신묘년의 건축 문화 창달을 위한 협찬 도약을 다짐하였다.

먼저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월 4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회원 간의 인사 및 직원 인사, 회장 신년사, 업무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건축경기에서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여러 건축문화사업의 성과에 회원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이날 신정철 회장은 "회원 모두가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2010년을 보내주시기 위해 우리 지역에 많은 건축문화업적을 일궈낼 수 있었다"며 "2011년 신묘년은 우리 건축인



모두 부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건축사회도 1월 6일 회관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참석회원들과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성업 회장은 "건축사가 건축학계·건축행정을 아우르는 건축계의 중심에 서서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국제교류사업과 건축문화제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라북도 건축문화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하고, 협회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일정상 시무식을 생략하였다.

전북건축사회, 특별한 송년의 밤 개최

- '초청특강 진행 및 사회봉사단체에 성금 전달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12월 21일 전주 완산구에 있는 금양정에서 이성업 회장을 비롯한 도내 건축가협회·건축학회 임원 및 건축과 교수, 건축행정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송년의 밤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0년 도중에 있었던 건축인들의 미담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묘년 새해에는 건축인들의 위상이 좀 더 강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건축인 송년의 밤에 앞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건축과 변화라는 주제로 원광대 건축학과 윤기병 교수의 특강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혁신을 통해 건축인들이 지역사회에 어우러지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노인무료급식 및 이·미용 봉사 등 시행하는 '한사랑복지회'에 일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광주건단협, 충북대 이만형 교수 초청강연 개최

- '주택부문의 정책 환경분석'이란 주제로 진행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12월 2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이만형 교수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신정철 공동위원장은 "주택부문의 권위자인 충북대 이만형 교수의 초청 강연이 우리 지역의 주택부문 정책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만형 교수는 "주택부문의 정책 환경 분석이란 주제로 약 2시간여에 걸쳐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변수, 경제 변수, 정치변수 등 9가지 요소를 'CREATE SEPTEMBER'로 재치 있게 설명하여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연에 참석한 한 시민은 "주택부문 정책과 관련한 주제로 진행되다하여 조금은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청강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인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11월 19일에 진행된 전주 한옥마을 탐방 및 심포지엄에 이어 열리게 되었다.

광주건축사회, 건축사아카데미 12차~13차 강좌 진행

- 아카데미 수료식, 1/13(목) 10시 30분 광주건축사회 5층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제12차, 13차 건축사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제12차 아카데미는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중 교수의 '디자인 및 색채이론'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제13차 아카데미는 법무법인 서석 윤춘주 변호사의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이해'란 주제로 열렸다.

광주건축사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강좌

인 이번 강좌에 아카데미 신청자 외에도 많은 건축사들이 참석하여 차기 건축사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주었다.

한편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의 수료식은 1월 13일 10시 30분에 광주건축사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정광민 건축사의 우수건축물 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건축계 동정

- *전입**
 - 정광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자경당 · 광주 서구 차평동 1288-1 자야빌딩 4층
- *변경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안한호 건축사 / 으뜸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쌍촌동 1239-7

*변경 (상호 변경)

- 정구영 건축사 / 구영 건축사사무소 → 데케이 건축사사무소

전북 건축계 동정

- *입회**
 - 이재현 건축사 / 상상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57-5
- *변경 (소재지 변경)**
 - 정희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도건축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번지
- *부고**
 - 최순호 건축사 / 세움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12월 23일(목)
 - 이천식 건축사 / 코아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12월 26일(일)
 - 강춘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소리재 · 장인상 - 1월 1일(토)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박환영 건축사 / 이감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44-1
- *변경 (소재지 변경)**
 - 이환욱 건축사 / 동일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90-3
- *결혼**
 - 김병삼 건축사 / 제일 건축사사무소 · 장녀 - 12월 4일 (토)
- *기타**
 - 전남도 건축직 공무원 정년 퇴직 · 박형수 시설사무관 (2010.12.31자)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 사무위임사항(시행일 : 2010년 12월 13일부터)

소관	위임사무내용	수임기관	해당시·군
전라남도 행정박마을과	1. 건축사 업무신고 2. 건축사업신고변경(소재지·명칭) 3. 휴·폐업 4. 건축사 업무신고부 정리	전라남도 동부출장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곡성

광주 유연창 건축사, 광주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유연창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 건축)가 지난 23일 광주 동구 아모레퍼시픽 3층 강당에서 열린 제7회 광주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광주건축가협회장과 건축사아카데미 초대 원장을 역임한 유연창 건축사는

건축 관련 단체의 연합회를 조직, 건축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상은 광주예술문화상 회원으로 협회 발전에 공이 지대하고 우수한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 발전에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 20명(대상 4명, 신인상 4명, 공로상 12명)에게 수여되었으며 대상은 각 100만원, 신인상은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동아인재대학) 사무총장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제13회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미술전

- 광주시민들에게 건축사이자 예술가로서의 면모 보여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미술전이 지난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약 10일간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렸다.

30여 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전시된

이번 미술전 개막식에서 미술동호회 양동현 회장은 "평소 건축 활동과 미술을 통하여 인간의 감성을 키우며 도시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회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으며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의 자긍심을 높이며 이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힘을 보태는 더 많은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매년 미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축사로서의 예술적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는 2010년 초에도 북구청 갤러리에서 제12회 미술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어번폴리 현상설계공모

- 2월 1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가능



광주시는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어번폴리(본지 12월호 3면 참조)프로젝트 현상공모를 내년 2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번폴리(Urban Folly)는 현재 도심 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구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구 광주 읍성의 유휴를 따라 13명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광주 도심 10개의 지역에 각자의 개성과 건축적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의 상황 및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장소성을 고려한 작품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미 12명의 세계적인 건축가는 선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통해 1명의 건축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어번폴리 현상공모(안)

공모기간	2010년 12월 20일 ~ 2011년 2월 11일 17:00까지(방문접수)
공모내용	국민 아이디어 현상설계 공모
대상부지	광주세무소 부근 (황금로 입구), 광주 옛 읍성터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1팀은 4인 이내)
제출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A1 패널 1매 10mm 보드 부착 (패널에는 참가자의 이름이나 소속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표기해서는 안되며 영문2자+숫자3 조합 아이디어를 만들어 패널 우측상단에 표기할 것) 데이터 파일 CD(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2길 211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디자인팀 062)608-4330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작 1점 : 상금 1,000만원과 상패 우수작 2점 : 상금 500만원과 상패 입 선 5점 : 상패
결과발표	2011년 2월 광주시,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개별통보

호남대 최명규 교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에...

-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2년 12월까지 직무수행



광주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최명규 교수가 한국농촌건축학회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지난해 12월 17일 리스승파캐슬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농촌건축학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농촌건축학회는 농촌건축 관련 전문인

력간에 상호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 농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건축의 환경과 지역시설의 정비 및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하고 특성화된 농촌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8년 7월에 창립하였으며 현재 4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학·관·민이 참여하는 각종 워크숍과 세미나를 격월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법/령/조/칙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법시행령이 2010년 12월 13일자로 일부개정되어 공포, 시행되었다.

▶ 주요내용

- 제53조(건축위원회)와 관련하여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모두 1/10이하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며,
- 제14조(용도변경)5항의 건축물 용도별 시설군 중 '장례식장'이 기존 9호 그밖의 시설군에 속했으나, 2호 산업등 시설군에 속하게 변경되어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제27조(대지의 조정) ①항 조정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중 기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변경됨에 따라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 해당 하는 건축물도 조정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변경되면서 상업지역의 다중이용건축물 중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 제91조 3의 3항의 토지굴착 10m 이상의 공사 등에 토목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토목기술자 또는 지질 및 기반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이 외에도 소방관련, 기설건축물, 보급지리주택, 감리에 대한 사항 등이 변경되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은 12월 13일 개정 공포되었으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등이 다시금 입법예고되어 2011년 1월 10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건축법 시행령은 2011년 2월 안에 개정 공포될 예정이라 한다.

▶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은

- 내진설계 강화에 의해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 85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신고사항이었으나 허가사항으로 변경,
- 기존 신고건축물의 설계도서가 배치도와 평면도, 건축계획서로 가능하였으나, 입면도, 단면도, 실내재료 마감표를 추가,
-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의 규모를 500제곱미터 이하로 줄이며,
- 기존 보육시설에 안전시설 추가 시 건축면적, 바닥면적에서 제외,
- 관광호텔을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여 관광호텔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외에도 도시사 사전승인 완화, 건축허가 착공제한 시 주민의견청취 마련,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체계구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개선, 기설건축물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범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곽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성호, 송명옥, 김기범, 정영범, 정관선,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벌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옛 구동체육관부지에 도심속 문화정원으로 다시 태어난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참신하고 다채로운 공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 누구나 즐겨찾는 친숙한 문화공간조성, 각종 문화예술 정보 제공 등 예술의 향기가 그윽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한대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50만원

김동선 |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30만원

안길전 | (주)엘엠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30만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향)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세상의 눈 뜨기

당당한 이별

강재구
(주)삼흥건설 차장



처음 만남은 고2 여름이었던 것 같다. 우연히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만난 홍콩배우 주윤발... 집은 선그라스에 선상을 잘근잘근 씹어대며 멋지게 내뿜는 연기... 영웅을 닮아 가고 싶었을 까. 그때부터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눈물나는 최류탄 연기도, 사춘기시절의 스트레스도, 담배연기로 이겨낼 수 있었다. 대학시절 낭만의 스토리에서 담배를 빼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으며, 군대시절 힘든 훈련 중에 꿀맛 같은 휴식은 언제나 담배와 함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인이 되었을 때, 담배는 언제나 내 곁에서, 기쁠 때와 힘들 때를 함께 하였다.

[식후연초 불로장생]을 외치며 함께한 세월이 20여년이 넘어버렸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 담배의 해악보다는 스트레스 해소가 더 건강에 좋다고 확신했었고,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는 일편단심 정신과 그 믿음의 한 곳에는 의학의 눈부신 발전 속에 담배를 아무리 많이 피워대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황 모 박사님을 많이 믿었는데... 사실 술 끊기가 더 어렵다.)

새해가 되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담배와 이별 약속도 여러번 했었지만, 그 간의 노고와 정을 차마 매몰하게 내칠 수 없어 다시 만나고 하던 해가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독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담배 끊는 사람을 독한X이라며 손가락질 하였지만, 속으로는 부러워 했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다 커서 선악을 구별하는 막내딸래미의 실망스런

눈빛이 두려워 멋진 아빠가 되고자 다시금 이별 약속을 하게 된 것이다. (요즘 유치원에서는 담배피우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 같다.) 일주일을 목표로 술자리도 피하고, 흡연자와의 만남을 피하는 식으로 일 주일을 버텼고, 다시 일주일, 다시 일주일, 하다보니 어느덧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고... (금연의 노하우를 표현하고 싶은데, 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제 5개월이 되었다. 아직도 담배를 끊은게 아니라 참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가끔 울컥 할 때 강한 유혹이 몰아치지만, 심호흡을 하며 참아본다. 금연을 하면서 잃은 것 보다 얻은게 더 많기에, 충분히 참을만 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에, 참는자의 우월함을 즐기며... (실재한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게 된다) 항상 담배 냄새에 찌들었던 몸과 마음이 이제는 향기로운 향수를 날리게 되고, 주머니에 가득차던 담배가루와 라이터는 사라지고 없다. 산에 올라가도 가래가 나오지 않는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풀려고 한다.

어느새 담배와의 이별에 익숙해져가는 나를 느낀다. 최근까지 우리 한국사회, 특히 우리 건설환경은 담배에 관대했었다. 심지어 군대보다 더욱 담배를 권장하는 사회가 있었다. 건설환경이 아닌가 할 정도였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 변해갔다. 현장내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비흡연자가 늘어나고 금연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흡연자는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언제가는 이별해야 할 운명이라면, 이왕이면, 새롭게 시작하는 2011년 새해에, [내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도 챙기고, 풀 나게 큰소리 치면서 당당한 이별하자

● 한평의 시 득량만

문창식 건축사
우리 건축사무소

유년을 건너 간다
활시위 떠난 배수갑문에서
철새들 갈대숲에 숨고
마이산 두 귀 쫓긋
너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는노
득량도가 함선으로 다가선다
바다를 놔 버리다가 다시금 안고 가는 지금
공룡알 줄탁 퍼 선소船所에 든다
이제 제자리 잡았느냐고
두 발 펴고 자느냐고
몸으로는 널베 밀고
머리는 한반도 밀고 움-흠 하나노고
이순신 장군 흐뭇하게 웃으시는,
주월산 행글라이더 날아 금시조 만든다고
가끔은 얼굴을 바다에 비춰보고
비상을 이야기한다
철없는 열한 살 소년 쇠골 먹이는 해안선에
실오라기 없는 몸매로 같이 놀았을
소라, 조개, 굴을 타던 해금이며
또 다른 유년을 건너가는
활시위 날고 있다

*선소 : 득량만 공룡알 화석지 부근마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함선을 수리한 곳이라 함

BOOK



누구에게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골목같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고한 인생의 목표를 정한 후, 이 목표를 달성해 줄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인생의 성공은 보장된 것만 같은 희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지만 삶이라는 게 어디 계획대로 되는 것이던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돌발 사태들이 사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터지고, 성실하게 매진했던 모든 노력들이 평화되거나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면 성공은 커녕 삶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하여 꿈과 희망은 사라지고 삶의 회의와 세상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스티브 도나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정상적이라는 등정의 방식에 대입하기 때문에 인생이 버거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앞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 지음 / 고상숙 옮김 / 김영사 펴냄

강성영
출판 프리랜서

만 보고 길어가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한평 넘치 정성에 이르렀더라도 잠깐 머물다 다시 하산길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 등정이다. 목표를 이루는 길도 험난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등정의 방식이다.

하지만 삶의 방식은 이와 같은 등정의 방식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소소한 삶의 문제들이 결과를 좌우하는 치명적인 단초가 되기도 하고, 미처 예견치 못했던 상황들이 삶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티브 도나휴는 삶이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더 유사하다고 말한다. 즉 산을 오르는 방법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사막을 즐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곧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을 헤쳐 나가는 데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 준다. "인생은 분명히 목표가 보이는 산보다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한 사막을 더 닮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가는 길은 미리 그려놓은 지도에 없기" 때문이다.

● 사막을 즐기롭게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1.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라.
2.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 더 많이 쉬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3.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 정체 상태에 빠지면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내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다.
4.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
- 사막을 건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5.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파이어에서 나와 캠프한 사막의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
6.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건축사 Gallery



가을
가을은 색의 계절인 것 같다.
산천초목들은 본색을 드러내 온 산이 색 잔치를 한다.
물에 비춰진 가을의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정태호 건축사 작

Photo



2011년 신묘년 새해 첫날 아침 나주공산에서

산은 내게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광을 가져다 준다.
그곳에서 많지 않은 햇빛이 인파들과 크고 작은 소망을 염원하였다.
나와 아들 녀석 역시 그들과 함께 미소를 머금고
한참을 신묘년 새해 첫날의 일출을 바라보았다.

박종호 건축사

건축물의 가치향상,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

초석건설산업(주)이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RIVER CLACK
THE FLAT ROOF METAL COVERING SYSTEM

저희 초석건설산업(주)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신공법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며 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실적보다는 미래의 VISION을 제시하고 실행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을 위해 책임있는 설계품질, 시공품질, 최고의 품질경영과 기술개발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 병 업



나주 국민체육센터



완도 수협활어유통센터



장흥 우산도전망대



완도 수협활어유통센터



무주 반딧불천문과학관



광주 국악전수관



장성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전시관



부안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부천 가톨릭대학교 150주년기념관



청도 솔리움타운하우스



치평동 근린생활시설



돌출이음



각행돌출이음



평이음



가락이음



리빌패널



골패널

티타늄-아연판(ZINK), RIVER CLACK, (산화)동판, AL SHEET(지붕재, ECOTEEL(접합강판), 링클수지강판, 스테인레스(지붕재), 칼라강판, 고밀도목재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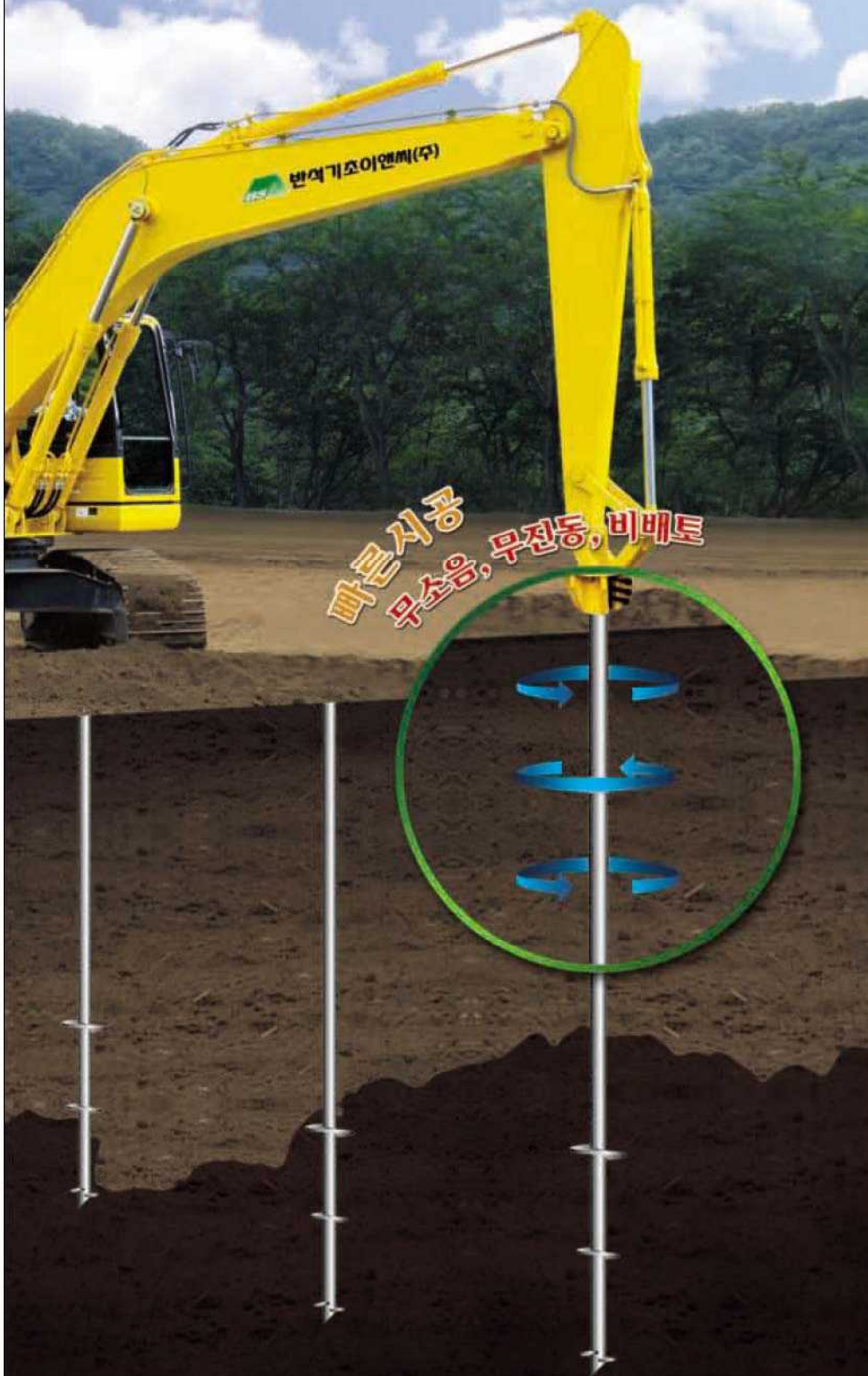
초석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구영드림빌 613호
TEL.(062)381-1138 FAX.062)381-113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

ROTARY PILE 공법

나선형 회전운동으로 지반에 삽입하여 주변 마찰과 선단지지함으로써
압축과 인장력에 강한 지지력을 최대화한 친환경 파일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

시공사례



부천고강동 공영차고지



군산 한산공장



군산 OCI 공장



파주 한양 아파트



속초 한화리조트

